

ISSN 2765-3005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현황과 과제

Vol. 23

2024. 12.

ISSUE PAPER

NCK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현황과 과제

김민영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이지연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들어가며: 근대 문헌의 개념	02
II. 국내외 근대 문헌 온라인 서비스 현황	02
1.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02
2. 국내 기관 현황	04
3. 국외 기관 현황	07
4. 시사점	09
III.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10
1. 근대 문헌 이용자 및 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0
2.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11
IV. 나오며: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목표	11
참고문헌	13

주요 키워드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서비스, 통합서비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23호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78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s://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현황과 과제*

김민영(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이지연(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요약

한국 근대 문헌은 국가기록문화유산으로서 미래가치가 높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를 포함해 근대 문헌 약 14만 권을 소장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면모를 보이지만, 근대 문헌에 대한 좀 더 총체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기관(국내 48개, 국외 22개)의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사 결과 국내외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는 장서 대비 디지털화율이 낮고, 타 기관과 자료 연계가 부족하여 이용자가 많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문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각 기관의 메타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제공 정보가 다르므로,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온라인 서비스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직관적이고 세분화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가는 물론 일반 이용자의 근대 문헌 접근성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국내외 대부분 기관에 근대 문헌 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소장기관과 협력해 근대 문헌을 연계·통합하여 서비스해야 한다.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근대 문헌의 보존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 근대 문헌 활용을 증진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료 보존과 관리를 넘어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 발전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하는 적극적인 정보 지원을 의미한다.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근대 문헌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교량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과거 기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교수) 용역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주요 키워드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서비스, 통합서비스

I. 들어가며: 근대 문헌의 개념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이자 유물로 최근 그 미래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근대 문헌은 개화기부터 해방기까지 근대적 인쇄출판 방식으로 간행된 자료를 의미한다. 특히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지정한 기록유산(근대 문서)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개화기부터 해방기까지 근대적 인쇄 또는 필사 방식으로 제작된 이러한 문헌들은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보존 환경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서 상당수 문헌이 열악한 지질과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전담 인력이 부족해 망실 또는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소장 근대 문헌의 총량은 1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중 국립중앙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 등 근대 문헌 약 14만 권을 소장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¹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근대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도 다양한 목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도서관과 박물관의 근대 문헌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서비스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근대 문헌 온라인 서비스 현황

1.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가. 자료 검색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의 ‘자료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근대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상세검색에서 발행

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목록 데이터(CEC, CWC, DDC, KDC, KDCP로 구분된 자료) 중 발행 연도가 1894~1945년인 단행본인 자료는 약 140,245 권이며,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오영식, 2009)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근대 문헌은 최소 100만 권 이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유춘동 외, 2022, 2-6).

연도, 자료유형 등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는 서지 정보, 온라인 원문(있는 경우), 목차, 관련 분야의 ‘최신자료’와 ‘인기자료’가 제공된다. 메타데이터 항목으로는 표제/저자 사항, 판 사항, 발행 사항, 형태 사항, 주기 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근대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검색 기능은 없다.

2)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이 종합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것으로 한국 고문헌(일부 근대 문헌 포함)의 소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간략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을 갖춘 소장자료 검색과 내용·형식별, 판종별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디렉토리 검색을 지원한다. 국내외 143개 기관이 참여하여 소장기관별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검색 결과에는 목차, 해제, 원문, 피디에프(PDF), 텍스트 등이 포함된다. 메타데이터 항목은 표제/저자 사항, 판 사항, 발행 사항, 형태 사항, 주기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별도 웹사이트(KORCIS)로 운영된다.

3) 한국근대문학종합목록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한국 근대문학 종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국내 문학관 등 42개 기관과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등 국외 3개 기관(총 45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다. 종합목록을 표방하지만 참여기관 수는 제한적이다.

자료 검색은 간략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기간 검색 기능이 강점이다. 검색 결과는 ‘종합목록’, ‘관련 연구’, ‘참고 정보’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종합목록’에는 제목, 저자, 발행 사항, 장르 정보와 함께 판본별 소장처 정보가 제공된다. 해당 자료를 소장한 기관에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문보기가 가능하나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로 원문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 ‘관련 연구’에서는 검색 자료 관련 연구 저서와 논문 정보를, ‘참고 정보’ 항목에서는 작품 해제와 작가 정보를 제공한다.

나. 아카이브 및 컬렉션-코리안메모리

국립중앙도서관 코리안메모리는 지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주제별 큐레이션을 거쳐 구성된 스토리와 컬렉션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스토리 273건과 컬렉션 105건이 서비스되며, 그중에는 근대 문헌을 주제로 한 ‘한글판 딱지본 소설’ 컬렉션 등이 포함된다. 자료 검색은 스토리, 컬렉션, 자원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공하며, 자원은 이미지, 영상, 음원, 구술 채록으로 세분된다. 별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원문 스캔본을 바로 열람할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는 자원유형, 자원형식/

매체, 표준번호/부호, 제공기관, 소장기관, 저작권, 키워드 항목으로 구성된다. 현재 42개 공공도서관 등이 참여하며 독립적인 웹사이트(K-Memory)로 운영된다.

2. 국내 기관 현황

가. 조사 범위

국내 기관의 근대 문헌 온라인 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해 근대 문헌을 소장한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대학도서관 33개 기관(유천동 외, 2022, 37-38)과 근대 문헌을 소장하거나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기록관 등을 포함한 총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기관별 온라인 검색 서비스

1) 대학도서관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은 근대 문헌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서비스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근대 문헌을 특별히 관리하는데, 예컨대 단국대학교는 1910년 이후 1959년 이전까지 발행된 국내 간행 유일본 또는 희귀본 도서를 ‘준고서’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연세대학교는 개화기 이후 한국전쟁 이전 간행 자료를 ‘신서 귀중본’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경상국립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은 고문헌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 중 일부에 근대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대체로 소장자료 검색 기능에서 ‘제한검색’과 ‘상세검색’을 제공한다.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이나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고문헌, 고서 항목의 체크박스에서 대상 자료를 근대 문헌 자료로 한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은 ‘원문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디렉토리 검색’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은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문헌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정확해야 효과적이지만, 디렉토리 검색은 키워드 검색에 비해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음가’, ‘코드’, ‘부수’, ‘총획수’, ‘신출 한자’, ‘일본어 음독’ 등을 입력 문자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학교의 ‘고문헌 원문검색 사이트’는 통합검색 시 주제별, 언어별, 시대별 검색이 가능한 디렉토리 화면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2) 박물관 및 기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근대 문헌만을 위한 검색 환경을 따로 구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근현대사아카이브’는 주제, 시대, 유형별 분류를 이용한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기관별 특화 서비스

1) 컬렉션 및 아카이빙

①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춘추문고 희귀본’ 컬렉션은 연도별로 정리된 희귀본 목록을 제공한다.

② 고려대학교 도서관

‘아카이빙’ 메뉴에서는 학위논문, 고서(귀중본/일반본), 고지도 등 유형별 컬렉션을 제공하며 각 컬렉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컬렉션 내 검색 결과는 도서 정보와 원문 이미지를 제공한다.

③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유형별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컬렉션 내에서는 고문헌>주제별>문학>한국문학 순으로 세분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④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은 ‘고도서’, ‘고문헌’, ‘고지도’ 등을 수집하여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도와 지리지 등을 활용한 ‘역사지리정보 서비스’로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며, ‘규장각 역사문화콘텐츠’에서는 규장각의 역사에 대한 칼럼과 도록을 서비스한다.

⑤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조선시대법령자료’ 등 역사적 기록물과 연구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옛 행정구역을 복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아카이브’

잡지, 라디오, 영화 등 주제별 컬렉션을 구성하고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간단한 해제와 함께 제공한다.

⑦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근대자료산책’이라는 온라인 테마 컬렉션을 만들고, 문헌의 원문과 해제를 함께 제공한다.

2) 높은 원문 접근성

다음 기관들은 디지털 원문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특히 서울대학교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대부분 자료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기관별 컬렉션 및 아카이빙

경상국립대 남명학고문헌시스템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누리집에서는 원문 이미지를 바로 보기 어렵지만, ‘남명학 고문헌 시스템’에서 일부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로그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음
고려대학교	원문을 공개하나 일부 자료는 교내에서만 열람 가능하거나 로그인을 해야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음
단국대학교	로그인하지 않고 원문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자료만 원문 이미지 제공
서울대학교	로그인하지 않고 거의 모든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음
서울대학교 규장각	로그인하지 않고 거의 모든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음

3) 연계 및 협력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미주, 유럽, 아시아 등) 소재 한국 문화유산 열람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박물관 웹사이트 링크를 타고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유물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규장각역사지리정보’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다.

라. 메타데이터

1)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메타데이터 이용 항목은 대체로 유사하며, 공통적으로 자료유형, 서명/저자, 발행 정보, 형태, 청구기호, 언어, 등록번호, 마크(MARC) 제공 여부 등이 포함된다.

2) 박물관 및 기타

박물관 누리집에서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서명, 시대, 재질, 크기를

포함한다. 고궁박물관의 경우 서명, 제목,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 사항, 시대를 포함하는 좀 더 상세한 유형으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3. 국외 기관 현황

가. 조사 대상

동아시아, 북미, 유럽의 도서관과 기록관 22개 기관을 조사하여 자료 접근성이 우수하고 소장자료와 컬렉션이 다양하며 한국과 교류·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9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표 2> 참조).

<표 2> 동아시아, 북미, 유럽의 도서관 및 기록관 22개 기관

대륙	국가	번호	기관명
동아시아	일본	1	国立国会図書館(국립국회도서관)
		2	京都大学図書館(교토대학 부속도서관)
		3	東京大学文学部所蔵 小倉文庫(도쿄대학 오구라문고)
	중국	4	中国国家图书馆(중국국가도서관)
		5	北京大學圖書館(베이징대학교 도서관)
		6	上海市人民政府(상하이도서관)
북미	미국	7	Library of Congress(미국 의회도서관)
		8	National Archives(미국 국가기록원)
		9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ies-Tateuchi East Asia Library(워싱턴대학교 타테우치 동아시아도서관)
		10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시카고대학교 도서관)
		11	Columbia University Library-C.V. Starr East Asia Library(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1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C.V. Starr East Asian Library(캘리포니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캐나다	13	University of Toronto ChengYuTung East Asian Library(토론토대학교 청유통 동아시아도서관)

대륙	국가	번호	기관명
유럽	영국	14	The British Library(영국 국립도서관)
		15	The British Museum(영국 국립박물관)
		16	Cambridge University Library(케임브리지대학교 도서관)
	헝가리	17	Nemzeti Archivum(헝가리 국가기록원)
		18	Nemzeti Filmintezet(헝가리 국가영상기록원)
		19	Magyar Nemzeti Levéltár(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프랑스	20	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프랑스 BULAC)
	덴마크	21	Det Kgl. Bibliotek(덴마크 왕립도서관)
기타	호주	22	Australian National War Memorial(호주 국가 전쟁 기록관)

나. 협력 가능성

동아시아 기관들은 고려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기관들과 협력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일본 도쿄대학교 오구라문고는 고려대학교와 협력하여 한국 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양한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북미의 대학도서관들 중 상당수는 동아시아 한국학 자료를 별도로 운영하며, 예일대학교는 근대 시기 한국 문헌과 자료 검색 링크를 제공하고, 시카고대학교 도서관은 일제강점기 한국 자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에는 한국학 자료를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이 드물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의 아시아 부서는 한국 자료 컬렉션을 마련하고 전문가 큐레이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헝가리 국립문서보관소는 최근까지 서울대학교 등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진행하며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다. 메타데이터 구성

국의 조사 대상 22개 기관 모두 누리집에서 한국어 검색이 가능하며, 카탈로그는 한글, 한자, 영어 키워드(자료, 작가, 작품) 검색을 지원한다. 다만, 메타데이터 항목 표기 방식은 기관별로 차이를 보인다.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과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은 한글과 로마자를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는 반면,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은 한글과 로마자를 하나의 항목에 기록한다. 일본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한글과 한자가 구분 없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4. 시사점

가. 원문 서비스 제공

국내외 기관 온라인 서비스 조사 결과, 전체 장서 대비 디지털 자료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기관에 산재한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원문 서비스 구축 시에는 타 기관과 자료 연계 및 원문 이미지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해야 한다.

나. 메타데이터 표준 확보 및 통일

각 기관의 메타데이터 형식이 상이하므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일된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 직관적인 검색 환경 제공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면 직관적인 검색 환경을 구축하고 세분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국외 기관의 경우 한국 근대 문헌에 대한 범주가 미비하고, 소장 문헌 전체 목록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을 참고하여 디렉토리 검색 기능을 이용해 자료 유형별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문가는 물론 일반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해야 한다.

라. 근대 문헌 특화 통합서비스 구축

국내 박물관은 문헌과 유물을 함께 수집하지만 근대 문헌 검색 시 ‘지류’ 또는 ‘문헌’을 디렉토리 검색 기능에서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뿐 아니라 국외 기관의 경우 대부분 근대 문헌 담당자가 없어 일반 이용자에게 정보를 소극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국내외 기관을 연계하는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 ‘한국근대문헌종합목록’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근대 문헌 정보를 통합, 확장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Ⅲ.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1. 근대 문헌 이용자 및 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대 문헌 자료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931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근대 문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619명이었다. 아울러 근대 문헌 소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단국대학교 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도서관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문헌 이용자는 온라인 이용 비율이 높고,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70%를 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은 주로 ‘소장자료’ 또는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검색 방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주제별, 시대별 등 다양한 검색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요구는 높았으나 실제 이용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았다. 이는 기관별 디지털화 비율이 낮기 때문인데, 디지털화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은 타 기관의 근대 문헌 자료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기관 담당자들은 메타데이터 관리 항목에 전문 해제 필드를 포함하기를 원하였으며, 이용자 조사에서도 전문 해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디지털 스캐닝, 데이터 시각화, 자동번역 기능, 연계 자료 추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근대 문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필요한 개발이 요구된다.

일곱째, 근대 문헌 소장기관은 대부분 전문인력이 부족해 자료 보존에서 시급한 조치만 취하고 있으며, 전문교육 또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근대 문헌 통합서비스와 함께 협력 기관에 대한 전문 자료 보존과 관리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2.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가. 기존 근대 문헌 서비스의 한계

근대 문헌 소장기관 중 박물관은 유물 중심의 수집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제별 아카이브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도서관에서 근대 문헌 디지털 원문을 교내 접속에 한정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낮다.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근대 문헌 시스템이 미흡한 현실에서 개방형 원문 서비스와 전문 해제를 포함한 온라인 통합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

나. 메타데이터 표준과 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

국외 기관의 경우,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문헌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메타데이터 항목이 상이하여 동일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 이로써 국외에 산재한 근대 문헌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내외 근대 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 근대 문헌에 대한 접근성 확대

국외 기관이 주로 제공하는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은 국외 소장 근대 문헌 목록을 브라우징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디렉토리 형식의 희귀본 컬렉션은 대부분 고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근대 문헌’에 특화된 컬렉션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국내외 한국 근대 문헌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근대 문헌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Ⅳ. 나오며: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의 목표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지식문화유산인 근대 문헌을 수집하고 보존·관리하는 주요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서 근대 문헌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 근대 문헌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정보 지원을 의미한다. 소극적인 자료 보존·관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정보 활용 기회를 확대하려면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와 같은 이용자 친화적인 접근·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근대 문헌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디지털화된 근대 문헌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식 공유와 나눔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연구자들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탐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검색·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문헌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편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 국립중앙도서관 (2019).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중국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조사 및 디지털화 협의. <https://www.oak.go.kr/nl-ir/handle/2020.oak/146>.
- 국립중앙도서관 (2023).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보고서_위싱턴대학교 소장 한국 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8).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보고서_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2018). 일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실태 파악 및 구입·수집. <https://www.oak.go.kr/nl-ir/handle/2020.oak/369>.
- 국립중앙도서관 (2019). 호주도서관 종합목록 운영사례 조사. <https://www.oak.go.kr/nl-ir/handle/2020.oak/185>.
- 국립중앙도서관 (2018). 한국 고문헌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국사편찬위원회 (2020). 한국고문서입문.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남권희 (2020).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 노영희, 강정아, 정대근 (2016).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4), 27-57.
- 방민호 (2014).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 심경 (2008).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AquaBrowser. 도서관문화, 49(10), 48-56.
- 오영식 (2009).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소명출판.
- 유춘동, 이윤석, 이해은, 김낙현, 김현주, 엄태웅, 유형동 (2023).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윤은하 (2022). 국내 민간기록관리의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기록학연구, 72, 5-32.
- 이윤상 (2006). 역사용어 바로 쓰기 한말, 개항기, 개화기, 애국계몽기. 역사비평, 300-304.
- 조연현 (1985).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 홍현진, 노영희, 강미화, 정대근 (2014).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및 구축: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 Dempsey, L. (2006). The Library Catalogue in the New Discovery Environment: Some Thoughts. Ariadne, Issue 48. <https://www.ariadne.ac.uk/issue48/dempsey/>
- Marshall Breeding, M. (2007). Next-Generation Library Catalog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3(4), 1-44.
- McKemmish, S. (1996). Evidence of Me.... [Personal recordkeep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4(1), 28-45.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ttps://www.nla.gov.au/collections/what-we-collect/asian/korean-collection#TROVE>. <https://trove.nla.gov.au/?keyword=korea>